

유럽 독일어권 지역의 전통 의상, 트라흐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지역의 전통 의상인 '트라흐트'는 과거에는 출신 지역과 사회적 지위 등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지만, 오늘날은 문화적 자부심과 개성의 표현이 되었다.

Threads of the Homeland

In old times, *Tracht* could tell a person's story, from residence to social status. Today, it's become an expression of individuality and resurging cultural pride across Europe's German-speaking regions.



가슴을 꼭 조이는 보디스와 가죽 반바지. 사람들은 유럽 독일어권 지역의 전통 의상인 '트라흐트'를 한눈에 알아본다. '트라흐트'는 독일어로 '의복'을 뜻하는 단어다. 오늘날 결혼식이나 옥토버페스트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볼 수 있는 이 의상의 역사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트라흐트는 알프스산맥 시골 지역의 소작농들이 처음 입기 시작했다. 염색하지 않은 투박한 옷감과 여유로운 마름질이 특징이었다. 재봉사가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옮겨 다니며, 옷감을 공급하고 옷을 지었다. 여성용 의상은 보통 보디스, 블라우스, 치마로 구성되고, 남성용 의상은 옷깃이 달린 셔츠와 '레더호젠'이라 불리는 짧은 가죽 바지로 이루어졌으며 때때로 조끼도 포함되었다.

"핵심은 실용성이었습니다." 독일 남부의 트라흐트 전통을 지키는 단체 '고향과 민중 생활 클럽'의 이사 우르줄라 휠제의 말이다. "치마는 보디스 안으로 넣어서 가슴 밑까지 올려 입었는데, 임신으로 배가 부르면 치마가 더 넓게 퍼졌죠. 남자가 입는 가죽 바지는 일할 때 아주 편했지요."

18세기에 이르러 트라흐트는 지위를 상징하게 됐다.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일상복과 주일 예배나 특별한 행사 때 입는 복장이 구분되었다. 이러한 의상은 "고향과 가문 등 출신 배경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다고 휠제는 말한다. "옷에 착용자의 고향, 가족, 친구의 이야기가 담겼죠."

마을마다 고유한 스타일의 트라흐트가 있었다. 바덴 지방에는 어떤 독일어권 지역보다 다양한 트라흐트가 존재하는데, 그 종류만 50가지에 달한다. 가장 잘 알려진 아이템은 방울이 풍성하게 달린 모자 '볼렌후트'인데, 이는 흔히 '흑림'이라 불리는 독일 남서부의 산림 지대 슈바르츠발트의 개신교 여성들이 쓰던 것이다. 동부 브란덴부르크의 여성들은 보닛 형태의 검은색 모자를 쓰고 흰색 주름 장식의 깃이 달린 옷을 입었다. 오스트리아의 아우스제를란트 지역 여성들은 화려한 색깔의 실크 스카프와 앞치마를 착용했다. 스위스 아펜첼 남성들은 밝은 노란색 바지를, 취리히 여성들은 밝은 파란색 앞치마를 입었다.

트라흐트를 통해 출신 지역만 드러나는 게 아니었다. 종교도 짐작할 수 있었다. 개신교도는 짙은 색 옷을 주로 입었고, 가톨릭교도는 화려한 색상과 장식을 선호했다. 개신교 소녀들은 입교식에서 처음 볼렌후트를 썼다. 결혼 여부도 옷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미혼 여성은 앞치마 왼쪽에, 약혼하거나 결혼한 여성은 앞치마 오른쪽에 매듭을 묶었다.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경우 미혼 여성은 빨간색 볼렌후트를, 기혼 여성은 검은색 볼렌후트를 착용했다. 남성은 다른 색상의 레더호젠이나

Bosom-hugging bodices and leather britches — there's no doubt about i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recognize *Tracht*, the traditional dress of Europe's German-speaking regions. *Tracht* translates simply to "what's worn," but what's worn these days for special occasions like weddings and Oktoberfest has a surprisingly romantic history that stretches back to the 16th century.

In rural Alpine areas, *Tracht* began as peasants' attire. Outfits were sewn by traveling seamstresses, who moved on to the next farm once their work was complete. For women, the outfit was usually a bodice, blouse and skirt, while men wore collared shirts and leather shorts called lederhosen, sometimes with a vest.

"The point was to be practical," says Ursula Hülse, the director of the Homeland and Folklife Club, which preserves *Tracht* traditions in southern Germany. "The skirt would go under the bodice, up underneath the breasts, to expand when a woman was pregnant. For men, leather shorts were better for working."

In the 18th century, *Tracht* started to become a status symbol, and distinct styles emerged, differentiating everyday clothing from fancier pieces worn for Sunday church and special occasions. These *Tracht* pieces became "a symbol of where one comes from and where his homeland is," explains Hülse. "The clothing all by itself could tell the story of one's homeland, family and friends."

Every village had its own unique styles. The Baden area has the largest number of *Tracht* forms of any German region — as many as 50. Its most famous item is the *Bollenhut*, a fluffy-balled headdress originally worn by Protestant women from the Black Forest. Meanwhile, in eastern Brandenburg, women wore black bonnetlike caps and white ruffled collars. In Austria's Ausseerland region, they wore vividly colored silk scarves and aprons. Men in Appenzell, Switzerland, wore bright yellow trousers, while women in Zurich wore bright blue aprons.

Your clothes could show more than your residence. They also represented your religion. Protestants wore darker colors, while Catholics favored vibrancy and embellishments. Protestant girls would get their first *Bollenhut* at their confirmation. You could tell if someone



독일의 전통 의상 '트라흐트' 커림으로 뮌헨의 옥토버페스트에 참가한 남성들. Young men at Munich's Oktoberfest wear Bavarian *Tracht*, including the leather shorts known as lederhosen.



특별한 재킷을 통해 결혼 여부를 드러냈다.

트라흐트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프리지아 제도에서 이 전통 의상은 신부의 혼수품이자 신부 집안의 재력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원단을 사용할수록 더 품질 높은 옷으로 인정받았고, 부유한 집안일수록 단추, 장식물, 자수 장식이 많이 들어갔다. 치마에 잡는 주름 수도 많을수록 좋은 옷이라 여긴 탓에 옷이 터무니없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과 나폴레옹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독일의 민족 운동과 함께, 트라흐트는 그 상징성이 강조되면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산업화 덕분에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고, 시대 흐름에 맞춰 현대화해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행했다.

‘란트하우스모데’, 즉 ‘시골풍 패션’이 19세기 중반에 광범위한 인기를 얻었다. 이때 등장한 옷이 ‘디른들’이다. 디른들은 보디스, 넉넉한 치마, 짧고 풍성한 소매에 가슴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 앞치마로 구성된 드레스다. 이 옷은 알프스산맥 지역 농민의 소박한 작업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디른들은 전형적인 트라흐트가 아니에요.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입었죠. 다른 독일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았어요.” 휠제의 말이다.

1870년대에 오스트리아 상류층 사이에서 디른들 스타일이 유행했지만 디른들이 더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시기는

was married by their *Tracht*, as well. Single women tied their aprons with the bow on the left side, while a bow on the right signified she was either engaged or married. In the Black Forest, an unmarried woman would wear a red *Bollenhut*; married women wore black ones. Men might wear a different shade of lederhosen or a special jacket if they were hitched.

Tracht also depicted social standing. In the Frisian Islands, the traditional garments were part of a bride’s dowry and conveyed her family’s wealth; the more fabric you wore, the higher the quality and the more buttons, embellishments and embroidery, the better off you were. Skirts would be folded many times to use as much fabric as possible, reaching rather ridiculous weights.

After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German Campaign to liberate the German states from Napoleon’s rule, *Tracht* became popular again as part of the nationalist renaissance. It also turned fashionable. Industrialization made mass production common. The traditions of handiwork, once standard, are now rarely seen.

바이에른 지역의 트라흐트를 입고 춤추는 사람들. 남성들은 티롤 지방의 모자를 쓰고 있다(왼쪽 페이지 왼쪽). 슈바르츠발트 트라흐트 박물관에 전시된 스위스 바젤과 보덴호 인근 지역의 트라흐트(왼쪽 페이지 오른쪽). 매듭을 앞치마 왼쪽에 묶으면 미혼을 뜻한다(위). 취향에 따라 장식을 선택할 수 있다(오른쪽 위).

Dancers in Bavarian *Tracht*. The men also wear Tyrolean hats (opposite left). *Tracht* from regions near Basel, Switzerland, and Lake Constance on display at the Black Forest Costume Museum in Haslach (opposite right). A sash tied on the left means that a woman is single (above). Ornamentations to personalize a design (above right).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였다. 수공으로 제작한 정교한 트라흐트의 대안으로 저렴한 여름 의상인 디른들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레더호젠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프랑스 혁명 이후, 짧은 가죽 바지는 촌스럽고 짐잡지 못한 옷으로 취급받았고,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프랑스 혁명 당시 급진적인 정치 세력이었던 상퀼로트가 입은 긴 바지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백조의 왕’ 혹은 ‘동화의 왕’이라 불린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2세는 디즈니성의 모델이었다는 노이슈반슈타인성, 린더호프성 등과 같은 웅장한 성을 축성하는 데 몰두한 인물이다. 건축만큼 민족 의상에도 관심이 많았던 루트비히 2세는 전통 의상을 지키고 발전시킬 지역 단체를 설립해 레더호젠을 비롯한 여러 트라흐트 의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조했다.

NEW IDENTITIES A phenomenon called *Landhausmode* or “country-inspired fashion” became popular toward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at’s where the dirndl comes in. The light, airy dress consists of a bodice and full skirt, a low-cut blouse with short puffy sleeves and an apron. The outfit was based on a simple uniform worn by Alpine peasants. “Dirndls are not *Tracht* in the usual sense,” says Hülse. “They were more found in Bavaria and Austria. In the other German states, it was a development that didn’t happen.” The Austrian upper classes adopted the style as high fashion in the 1870s, but it truly took off after WWI as a cheaper, summer-ready alternative to elaborately handcrafted *Tracht*.

At the same time, the popularity of lederhosen dropped.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 leather shorts became regarded as provincial, and male city dwellers started donning long trousers like those worn by the militant French sansculottes. Bavaria’s eccentric King Ludwig II is particularly to thank for the preservation of *Tracht* through early modern times, having ordered the establishment of

새로운 정체성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트라흐트는 독일 국가 사회주의 체제 아래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나치즘을 선전하는 책 <독일 시골 지역의 새로운 트라흐트>에서 이 전통 의상은 '이방인으로부터 우리 삶의 방식을 구분 짓는 수단'으로 묘사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의 공식 트라흐트가 제작되었다. 트라흐트 규제 위원회는 디른들을 '현대화'해 목선이 깊게 파인 옷깃, 넉넉한 실루엣, 더 짧은 치마 형태로 만들었고, 특별한 행사 때는 레더호젠 착용을 장려했다. 1938년에는 유대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디른들이나 레더호젠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금지 조치는 다른 지역과 민족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나치의 상징으로 활용된 트라흐트는 전후 치욕의 상징이 되었고, 그 인기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루트비히 2세의 칙령으로 세워진 지역 클럽과 기관이 없었더라면 지구상에서 트라흐트가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다. 새로운 관점과 문화적 자부심으로 무장한 독일의 젊은 세대는 트라흐트, 특히 란트하우스모데풍 레더호젠과 디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바이에른에서는 축제뿐 아니라 결혼식장, 나이트클럽에서도 트라흐트를 흔히 볼 수 있다. 올해 63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방문객을 유치한 뮌헨의

organizations to safeguard traditional styles.

In the 1930s and '40s, *Tracht* took on a whole different purpose under National Socialism. In the Nazi book *The New German Rural Tracht*, traditional dress was described as a "means of keeping our way of life from strangers" and a German national *Tracht* was established. A commission created for its regulation "modernized" the dirndl and promoted the wearing of lederhosen at special events. Jews were banned from publicly wearing dirndls or lederhosen in 1938, a prohibition that was eventually extended to include other regional and ethnic groups.

Nazism destroyed Germany's love of *Tracht* for decades

패션 브랜드 '노니'는 서아프리카의 켄테 직물로 여성용 드레스 '디른들'을 제작한다. 노니의 디른들은 독일의 수많은 이민자 그룹의 영향을 받았다(왼쪽 아래). 디자이너 스베나 안더가 만든 디른들의 세부 장식(아래). 바이에른 지역의 트라흐트를 입은 옥토버페스트의 연주자들(오른쪽 페이지).

Founded by sisters who immigrated to Germany from Cameroon, Noh Nee creates dirndls from West African kente fabrics. The Munich label's clothing is inspired by Germany's large immigrant population (below left). Detail of a dirndl by the designer Svenja Jander (below). Musicians at Oktoberfest wearing Bavarian *Tracht* (opposite).

옥토버페스트 축제 기간에는 도시 어디에서나 레더호젠, 디른들 등 트라흐트 의상을 입고 맥주를 즐기는 시민과 이 옷에 매료된 여행자를 쉽게 볼 수 있다.

트라흐트가 '쿨'한 의상으로 주목받으면서 패션업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에이치앤엠'은 옥토버페스트 컬렉션을 발표했다. 전통 모자와 디른들 스타일의 드레스를 착용한 세련된 모델이 그래픽티가 그려진 베를린의 거리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광고 이미지로 사용됐다. 트라흐트의 화려한 부활을 선봉에서 이끄는 것은 하이패션 업계다. 2013년, 카를 라거펠트는 '바이에른펑크 디른들' 캡슐 컬렉션을 발표했고, 돌체앤가바나의 2019년 봄·여름 컬렉션에는 트라흐트 스타일의 드레스가 포함되었다. 영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비비언 웨스트우드도 "모든 여성이 디른들을 입는다면 이 세상에서 추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을 딴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남편인 안드레아스 크론탈러는 오스트리아 티롤 출신으로, 지난 수년 동안 펑크와 트라흐트를 접목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트라흐트가 젊은 세대가 원하는 최신 스타일로 독일을 하나로 묶는 가운데, 뮌헨은 현대적 디른들의 중심지 역할을

after the war, as Germans became shamefully conscious about any displays of nationalism. As a designated symbol of Nazism, the practice of wearing *Tracht* declined heavily and may have gone completely extinct if not for local clubs and organizations like those decreed by Ludwig.

Now times are changing. A young generation of Germans with a new sense of cultural pride is embracing *Tracht*, particularly *Landhausmode* like lederhosen and dirndls. In Bavaria, *Tracht* is becoming as common at weddings and nightclubs as it is at festivals. Munich's Oktoberfest has also captivated an audience for *Tracht*.

Tracht has become cool and therefore a commercial darling. This year, global fast fashion brand H&M released an Oktoberfest collection. The ad campaign featured models in traditional hats and dirndl-inspired dresses posing on the graffitied streets of Berlin. In 2013, Karl Lagerfeld released a capsule collection of Bavarian-punk dirndls, while Dolce & Gabbana's Spring/Summer 2019 collection included *Tracht*-inspired dresses. British designer Vivienne Westwood's husband and creative



디른들 부활의 중심지인 뮌헨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트라흐트 차림을 볼 수 있다. Munich has become the center of a dirndl revival, with the dress now seen at festivals, weddings and clubs.



특히 하고 있다. 특히 신세대 트라흐트 디자이너들 덕분에 전통 수공예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렇듯 스타일 변형과 다채로운 해석이 시도되는 가운데 여성이 무릎길이부터 핫팬츠까지 다양한 형태의 레더호젠을 입는가 하면, 모조 다이아몬드와 반짝이로 보디스를 장식하거나 실크와 수제 날렵한 세련된 직물로 앞치마를 제작하기도 한다.

롤라 팔팅거는 현대적 디른들의 개척자로, 패리스 힐턴, 케이티 페리, 킴 카다시안 등 유명인을 위한 매혹적인 디른들 의상을 디자인해 명성을 떨친 디자이너다. 세상에 하나뿐인 원단을 만들고 정교한 장식과 자수까지 포함한 옷 한 벌을 제작하는 데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최신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죠. 트라흐트도 함께 변화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제안해야만 해요.” 팔팅거의 말이다. 그녀는 최근 컬렉션에서 자수 장식이 들어간 상의와 디른들 치마를 매치해 선보였다. 향후에도 청바지와 매치한 디른들 스타일의 상의, 트라흐트에서 영감을 받은 재킷 등 다양한 실험을 이어 갈 계획이다.

뮌헨에 쇼룸을 둔 디른들 브랜드 ‘노니’는 어릴 때 카메룬에서 독일로 이주한 자매가 운영한다. 이들은 서아프리카의 화려한 켄테 직물을 이용해 1950년대 바이에른 지방의 전통적인 디른들을 제작한다. 2017년 뮌헨시로부터 ‘민속 문화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두 자매 중 라미 베테리히는 자신과 독일인 남편 사이에서 난 딸, 그리고 독일의 대규모 이민자 그룹 덕분에 성공적인 브랜드를 일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제 딸은 서아프리카와 독일 바이에른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자랐죠. 그 애는 전통적인 바이에른 디른들은 자기 옷이 아닌 것 같아 못 입겠다고 했어요. 반면 우리 브랜드의 디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녹아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코스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남성용 트라흐트는 아직 디른들처럼 현대적인 스타일로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노니는 최근 가나에서 밀랍을 이용해 염색한 직물로 남성용 조끼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휠제에 따르면 란트하우스모데 스타일의 디른들과 레더호젠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전통 의상은 젊은 세대에게 그리 인기가 없다. 거의 50년간 클럽 운영에 참여해 온 그녀는 트라흐트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각종 행사를 통해 이를 지켜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주 흥미로워요.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고향을 알리는 건 참 보람찬 일이니까요.” 글 바버라 울지 사진 파스칼 뵈니에

director, Andreas Kronthaler, hails from Austria’s Tyrol region and has galvanized several punk-meets-*Tracht* looks over the years. The fashion house also collaborated with Austrian *Tracht* maker Tostmann Trachten.

Thanks to a new generation of contemporary *Tracht* designers in Munich, the handcraftsmanship of yore is enduring, and dirndls have even become haute couture. Lola Paltinger is a pioneer of the modern dirndl, having designed ensembles for the likes of Paris Hilton, Katy Perry and Kim Kardashian. Each piece can take months, from designing the one-of-a-kind fabrics to performing the intricate embroidery and embellishments.

“I just think it’s important to always stay on the pulse of the times — to always develop something new, stay up-to-date and be inspired by the current fashion trends,” says Paltinger. “Today, life moves so fast, and *Tracht* must also change and show a new image.” Her latest collection, for example, features an embroidered sweatshirt with a dirndl skirt. In the future, she plans to experiment with dirndl-style tops with jeans and *Tracht*-inspired jackets.

Also in Munich, the dirndl label Noh Nee is run by a pair of sisters who immigrated to Germany from Cameroon as children. Their designs feature West African kente fabrics with a traditional Bavarian dirndl cut from the 1950s. Rahmee Wetterich, one half of the Noh Nee duo, says her daughter, who has a German father, and Germany’s large immigrant population inspired the brand. “[My daughter] is a mixture of Bavaria, me and everything,” she says. “She always said she couldn’t wear typical Bavarian dirndls because she didn’t feel they reflected her. With our dirndls, she said this was the first time she felt all her identities inside. It doesn’t feel like a costume.”

According to Hülse, while *Landhausmode* like dirndls and lederhosen are thriving, the earlier, more traditional forms aren’t necessarily attracting young people. She says it’s imperative to continue her life’s work of preserving these traditions with *Tracht* events so that they’re never lost. “It’s a lot of work, but very interesting,” says Hülse, who has been running her *Tracht* club for almost 50 years. “What I love is you get to know the people and the landscape.” By Barbara Woolsey Photographs by Pascal Meunier